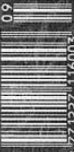


between Art &  
Business

VOL. 363 SEP 2008 www.monthlydesign.co.kr

# DESIGN



## 21세기 신표현주의, 소킨 디자인

해외 디자이너 핑귄룩스의 북 디자이너, 데이비드 피어슨

리포트 최근 2년간 브랜드 리뉴얼 트렌드

올림픽 디자인 리뷰 한국 디자이너 7인이 본 베이징 올림픽 디자인

디자이너 자동차 한 길로 끝장 볼 디자이너, 김한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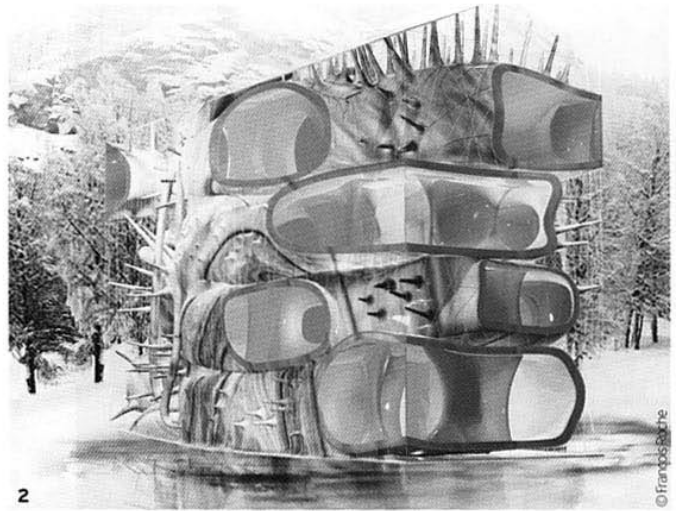
현대 건축에 장식이 부활하고 있다

# 〈장식의 재추출〉전 <센스웨어〉전





# Re-Sampling Ornament



1 건축가: 프랑시스 솔(Francis Soler), 프랑스의 문화정보부 레노베이션  
 2 건축가: 프랑수아 로슈(Francois Roche), 워터플럭스인 윈터(Waterflux in Winter)  
 3 건축가: 토머스 헤더윅(Thomas Heatherwick), 이스트 비치 카페(East Beach Cafe)

지난 6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스위스 바젤 SAM 스위스 건축 미술관에서 <장식의 재추출>이라는 전시가 열린다. 20세기 모더니즘 건축에서 장식은 부도덕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 뒤로 포스트모더니즘이 출현하기 전까지 세계는 기업의 효율성을 앞세워 굳터더기 없는 매끈한 표면의 건축을 편애해왔다. 그러나 최근 건축의 표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건물을 지지하는 구조 자체가 자유로운 표현의 소재가 되고 있다. 이런 변화를 이끈 요인으로는 우선 기술의 발전을 들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드로잉과 그것을 현실화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개발 덕분에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건물이 도심에 우뚝 서게 되었다. 또한 사람들이 실용과 청교도적인 믿음으로 가득 찬 건물에 싫증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장식의 재추출(re-sampling ornament)>라는 이 전시의 제목은 오늘날의 장식이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과거 위대한 건축 장식의 유산으로부터 영감받아 그것을 현대에 맞게 추출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글/김석희 시각평론가

## “장식은 건축의 근본적인 요소다”

전시 제목이 <장식의 재추출>인데, 어떻게 이런 제목이 붙었는지 궁금하다.

올리버 도메이슨(Oliver Domeisen) 우리는 역사적인 건축 선례로에서 이어진 흐름을 가지고 현대 작품을 찾아보려 했다. 우리가 말하는 '장식'은 장기간의 혈통을 통해 내려온 것이므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즉 이 전시에서 말하는 장식은 '재추출'한 것이다. 현대 건축과 디자인에서는 '표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형태와 구조에 비해 부수적으로 여겼던 표면이 전면이 나섰다. 왜 이런 경향이 대두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도메이슨 나는 표면이 구조와 형태에 비해 부수적이라는 의견에 반대한다. 1990년대에 들어 매끈한 표면을 추구했던 모더니즘의 유산은 아이팟과 같은 윤기 나는 표면의 제품으로 변모했다. 오늘날 많은 건축가들이 더 풍부하고 수사적인 표면을 탐구한다. 그들은 가까이서 보면 멀리서 보면 추각적이고 시각적 자극을 주는 효과를 만들려고 한다. 그렇다고 그런 장식적인 표면이 구조나 형태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아니다. 표면, 구조, 형태가 서로 조화롭게 결합되지 않더라도 장식은 이 세 가지 모두에게 표현의 기회를 준다.

20세기 이전, 귀족의 가구는 일반인의 가구와는 달랐다. 과시용으로 장식을 덧붙여야만 품위가 있다고 여겼다. 오늘날의 건축과 디자인은 장식으로 개성을 부여한다. 이것은 품위 보다는 놀이에 가까워 보인다.

도메이슨 20세기 이전의 장식은 품격을 높이기 위해 수공예적인 방식에 의존했다. 그것은 엄청나게 노동집약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 따라서 사치품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민주적인 의식이 발전함에 따라 장식품의 대량생산(비록 질이 낮고 복제품이지만)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과거 사치스럽게 여겼던 장식품을 비난하고 폐기하도록 만들었다. 오늘날 디지털화된 대량 주문 생산 방식은 고품질을 보증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복잡한 장식성의 부활은 모든 디자인 분야에서 발견된다. 비록 때때로 과거로의 나태한 퇴행 같기도 하지만.

컴퓨터의 발달로 복잡한 형태가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프랭크 게리는 카티아(CATIA)라는 디지털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이로써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복잡한 곡면을 계산할 수 있었다. 머릿속에서만 가능했던 일을 눈앞에서 시뮬레이션하는 컴퓨터의 발달은 건축가와 디자이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

도메이슨 이 전시에서 우리는 스위스 건축가 그라미azio & 콜러(Gramazio & Kohler)의 작품을 소개했다. 그들은 로봇이 벽돌담을 세울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어떠한 복잡한 패턴도 손쉽게 건축의 정교한 장식이 될 수 있게 된거다. 이것은 건축이 현재 어디로 가고있는지를 설명하는 단적인 사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건설업자들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시공 과정을 건축가가 통제할 수 있게 된거다. 따라서 디지털로 잉의 효과는 단지 복잡한 만곡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의 실행 과정을 새롭게 구축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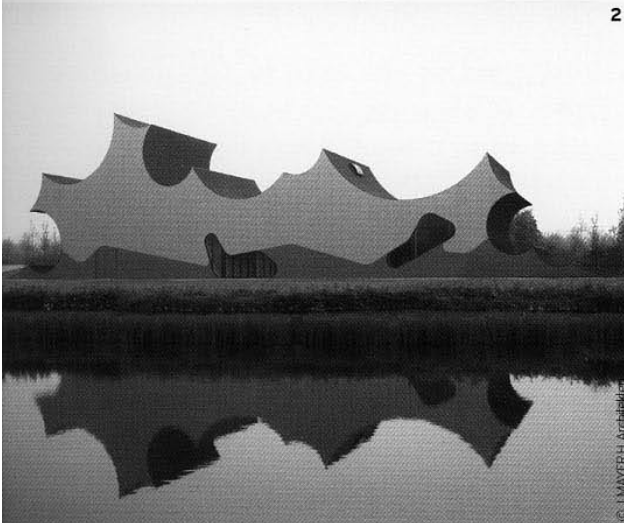
프란세스카 페르구손(Francesca Ferguson) 그리고 뭔가 특별한 건축을 요구하는 고객을 위해 건축가는 이제 이 디지털 모델링 방식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복잡한 곡면뿐만 아니라 사치스런 공예적 감수성까지.

모더니즘의 관념적 가혹함이 장식을 사치로 여겼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 일각에선 경제적 풍요에 의해 장식이 귀환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도메이슨 건축에서 모더니즘의 병폐는 유럽의 경제 상황과 정치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모더니즘의 지나친 엄격함은 도덕적인데, 이것은 바로 세계대전 이후 필수적인 것만 남기려는 시대가 낳은 결과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모더니즘이 지닌 자폐증적인 침묵에 한계에 다달았다. 그리하여 모더니즘 건축가들의 후손인 지금의 건축가들은 건축의 근본적인



2



# Re-Sampling Ornament

요소를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장식도 포함되어 있다. 장식은 결코 방증한 적이 없다. 오히려 장식은 늘 건축의 근본적인 요소였다. 오늘날의 대중은 너무 단순화된 추상적 형태보다 좀 더 표현적이고 수다스럽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것을 바란다.

페르구손 우리 주변의 지루한 건설 환경을 참기 힘들다. 이 지루한 건설 환경은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건축을 강요했던 경제성의 원리에 의해 탄생했다. 관능성과 신랄한 풍자성, 그리고 수다스러운 디자인을 향한 폭발적인 잠재성이 바로 장식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장식에 다시 눈을 뗐다. 이번 프로젝트로 우리가 다시 노출시키려는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잠재성이다. 우리 삶은 늘 효율성과 경제성이라는 원칙 아래 짓는다. 이런 건설 환경을 다시 살리는 일이 필요하다. 지적인 장식이 이것을 도울 것이다.

오늘날 건축을 필두로 나타나는 장식성이 트렌드인가, 아니면 필연적 결과인가?

도메이슨 오늘날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건축 용어가 있다. 바로 '스타일'이다. 스타일은 건축이 사회적 감성을 어떻게 형태로 표현할지, 또는 시대정신을 어떻게 요약할지에 관한 것이다. 스타일을 넘어서 영원한 것이 되고자 했던 건축 운동이 결국에는 스스로 스타일이 돼 버린 사실은 참으로 흥미롭다. 모더니즘이나 미니멀리즘을 떠올려보라. 따라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지?'에 답할 수 있는 단어로써 '스타일'은 '트렌드'보다 훨씬 유용한 단어다. 트렌드는 결과를 향에 가는 궤적에 불과하다.

아돌프 루스는 장식을 범죄로 깎아내리며 기교적인 장식의 저급함을 주장했다. 오늘날 건축에 나타나는 장식성이 경제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하는가?

도메이슨 장식은 건축에서 아름다움의 영역에 속한다. 나는 우리가 기능과 경제성 우선주의에 대한 최고도적 믿음에 지나치게 사로잡힌 것 같다. 그리하여 우리가 건축의 근본적인 책무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두렵다. 만약 고딕 성당과 로마 바로크 교회를 만든 사람들이 단지 경제성과 유지 비용만 고려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지어도 그 건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을까? 예술로서 좋은 건축은 일상의 단조롭고 고된 일을 넘어서 우리를 고양시키고, 또 우리가 사는 세계에 의미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실용성 이상을 표현한 건축이 개인과 사회, 문명에 주는 이익을 생각하면, 장식의 비용이란 그리 크지 않다. 페르구손 우리가 이번 전시를 함께 기획할 때, 나는 스위스 미니멀리즘에 대해 생각했다. 젊은 스위스 건축가들은 왜 아직도 모두가 똑같은가? 그것은 합리적인 형식을 강요하는 건축의 풍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더 적극적이고 즐거움을 주는 담론을 끌어내고자 했다. 공동 큐레이터인 올리버 도마이슨의 장식에 관한 풍부한 지식 덕분에 동시대 수많은 건축 작업과 장식의 역사를 같은 맥락에서 연결 지을 수 있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건축가들은 강요당한 실용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 했다. 물론 건축의 장식은 건축가가 확신을 갖고 주장할 때 보장받는다.

건축은 물론 디자인도 극렬한 표현성의 정점에 온 것 같다. 더 과시적이고, 더 보여주려 하는 디자인이 눈에 띈다. 이와 동시에 장식과 구조를 나누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재고해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장식'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하리라 보는가?

도메이슨 만약 우리가 장식과 구조 사이의 관계에 대해 논하려면 건축 구조의 변화를 살펴 봐야 한다. 커튼월(철골조 건물에서 더 이상 지지대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유리), 거대한 크기의 판유리, 모노코크(monocoque: 차체와 차대가 일치된 자동차의 면 구조), 이음매 없는 표면 마무리와 같은 것들 말이다. 오늘날 건축은 제품의 대량 주문 생산 기술을 받아들인다. 나는 앞으로 장식은 점점 더 디자인의 근본 원칙이 될 것이라 본다. 장식은 공간과 구조뿐만 아니라 클래딩(cladding: 현대 건축 구조 기술의 하나)의 근본 요소가 될 것이다. 장식이 제기하는 가장 흥미로운 질문 가운데 하나는 건물의 안과 밖 사이의 관계, 또 다양한 스케일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헤르조그 & 드 뫼롱(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을 디자인했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축가 중 하나다. 나는 미래에 건축의 수사적인 요소로써 장식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장식 그 자체가 건물을 형성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을 보고 싶다. ①



1 건축가: 마누엘 고틀랑(Manuelle Gautrand), 시트로엥 플래그십 쇼룸(Citroen Flagship Showroom)

2 건축가: 유르겐 메이어 아키텍트(Jurgen Mayer H. Architects), 단포스 유니버스(Danfoss Universe)

3 건축가: 도요 이토 & 어소시에이츠(Toyo Ito & Associates), 토즈 오토산도 사옥(Tod's Omotesando Building)

